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10월 26일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례단은 21일간 묵언 정진과 방역을 상징하던 마스크를 함께 잠시 벗으며 정진 회향의 환희심을 드러냈다.

만행결사 회향서 새 출발 기약
코로나 종식 기원 끝없는 정진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서 회향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 511km 걸어 봉은사서 회향
상월선원서 결사정신도 되새겨
순례단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
코로나 극복 삼보사찰 순례 기획
원력 · 신심으로 중흥 출발 발원

"시방삼세 두루하신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원만성취 하였습니다. 이 원력과 신심이 널리 퍼지고 이어져서 한국불교 중흥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절하옵니다."

전국의 불자들이 서울 봉은사에 모여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회향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위례 상월선원을 거쳐 다시 봉은사로 돌아오는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고 회향식을 가졌다. 총 511km의 대장정을 소화했음에도 순례단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봉은사 일주문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응원과 함께 인도 만행결사까지의 원력을 함께 모았다. 17대 종회의원 스님들과 사찰 주지 스님들, 대구 동화사, 적석사, 수국사, 약사사 등 순례에 참여한 스님들이 주석하는 사찰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길게 늘어서 순례단을 맞이했다. 순례단이 봉은사 일주문을 넘을 때는 저마다의 사찰 스님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장정의 끝으로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 도열했다. 김정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선창으로 모두 함께 발원문을 낭독하고 대장정은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선 새벽 순례단은 천막결사가 진행된 위례 상월선원으로 순례를 진행해 법회를 봉행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 길을 나선 순례단은 탄천변 자전거길을 통해 위례 상월선원에 도착했다.

순례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부부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순례에 동참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함께라는 가치를 알려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에 하남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용맹정진 당시 공양 올려진 잣죽을 아침공양으로 올리기도 했다.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은 "만행결사가 잘 이뤄질까 염려했지만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아 회향됐다. 이는 불자분들 모두의 공덕"이라고 말했다.

순례에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유승 스님은 "막상 회향하려니 서운한 생각 뿐"이라며 "문경새재 이화령을 넘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선두였는데 난코스였다. 하지만 힘든 오르막을 오르고 나니 내리막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불교 중흥 또한 어려운 만큼 마음을 모으면 중흥의 길이 함께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데 모여 수행하기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이란 이번 자비순례의 목적에 따라 정진해줘 감사하다. 순례단 뿐만 아니라 지원단과 취재에 나서준 언론사, 길 위에서 응원을 보내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선원은 이번 국난극복 불교중흥을 위한 자비순례 이후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삼보사찰 순례를 기획하고 있다.

만행결사 대중이 전한 이야기

"상월결사, '차별없는 불교'로 가는 길"

회주 자승 스님 10월 26일 자비순례 자자회서 강조해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6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자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차별없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불교의 사부대중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불교는 '차별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자자회'에서 불교가 나아갈 길로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를 제시했다.

먼저, 자승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두두물물 개유불성(頭頭物物 皆有佛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 3가지 키워드를 순례 대중에게 제시하며, 공통어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중들은 '무차 평등'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등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 정답은 아니었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정답은 '차별 없음'이었다.

자승 스님에 따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개개인 모두 존귀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으며, '두두물물 개유불성'은 모든 생명에는 차별없이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화두는 '차별 없음'에서 출발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미래는 차별없는 세상을 사부대중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차별 없음'을 보여주려 했다"면서 "천막 안팎으로 차별없이 수행하고 기도했다. 만행에 올라서는 사부대중이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것을 먹었으며,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승 스님은 '차별없는 사부대중'이 불교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했다. "인도의 불교는 이제 흔적만 남았다. 방일하면 한국불교도 역사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스님은 "종단이 해코지를 당할 때 이를 지키는 동력은 '차별없는 사부대중'에 있다.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이뤄졌다"며 "21일 동안 이어진 원력의 장정이 한국불교 미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자회에서 대부분의 순례 대중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함께 고된 길을 걸었던 도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순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천착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기도 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차별없는 세상과 불교는
미래불교가 지향할 목표
종단 수호 동력 '無차별'

순례과정 소회 함께 나눠
암투병 도반과 완주 감동

최고령 참가자인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이 수행은 어떠한 정진보다 훌륭했고, 보람이 있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순례 대중이 이 같은 고민을 함께 하면 일당 백 · 천 · 억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해 불철주야 심려를 놓지 않고 대장정에 오른 자승 스님과 동참한 사부대중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통해 얻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안락과 이익이 되는 순례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암투병 환자와 그의 도반이 함께 자비순례에 동참한 우바이의 사연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암투병 중인 최용수 포교사는 "새벽에 발자국 소리와 정적을 깨는 스틱 소리를 내어 죄송하다. 하지만 그 스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제 사정을 헤량해 달라"면서 "저는 걸으러 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피였고, 스틱 소리는 목탁소리였다.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스님은 침을 놔줬다. 지금 이 자리는 사부대중 덕분에 서 있는 것이다.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의 도반 김정숙 씨는 "암투병 중인 도반에게는 더 뜻 깊은 걸음이었을 것이다. 같이 걸어준 도반께 감사하다. 그 친구를 위한 기도가 내 자신이 편하려는 것인 줄 알게 됐다. 참회한다. 그래서 회향을 동시에 남을 위한 기도에 입재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교계 주요 재가 인사들의 자자와 동참 소감도 이어졌다. 재가 대표인 정충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는 "모든 분들 덕분에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 길에서 만난 모든 인연과 삼라만상에 감사드린다"면서 "공주 예비순례를 준비하며 지난 6월부터 150만보를 걸었다. 순례 원력을 바탕삼아 의미있는 회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2일째 여명과 함께 마주한 스님들의 행렬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보았다. 제자리에서 저를 갈고 닦아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자회 이후 순례단은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저녁 공양 후에는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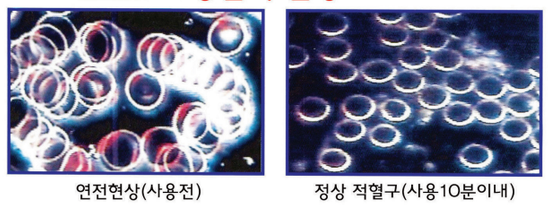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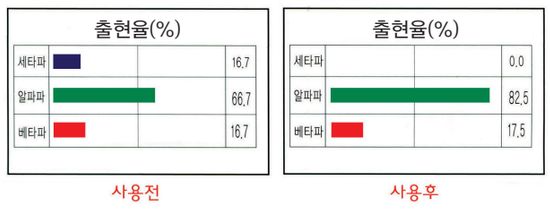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